

三國時代의 跆拳道에 關한 研究

鄭 燦 謨

目 次

序 言	3. 高句麗 跆拳道의 新羅 傳承
一. 祭天儀式과 跆拳道	4. 百濟의 武藝修練
二. 三國時代의 跆拳道와 武士團	結 語
1. 高句麗의 「선배」	參考文獻
2. 新羅의 「花郎」	

序 言

體育活動은 人類의 生活과 더불어 始作되었고 歷史와 더불어 現今에 이르고 있다. 어느 民族을 莫論하고 原始時代에는 必需物의 獲得, 外敵방어라는 人間本능의 生活要求에 따라 맹수나 他種族과 싸우면서 生存하여야 했다.

우리의 歷史와 함께 유구한 세월을 두고 發展해온 태권도는 「體力은 國力」이라는 國民體力向上政策과 體育人口의 저변 擴大에 발을 맞추어 一人一技의 하나로 全國적으로 보급되었고 心身修鍊 精神修養 體育向上의 태권도 정신이 體育의 理念과 目標에 相互符合하므로 드디어 우리나라의 國技가 되었다. 또한 國防과 治安을 담당하는 軍隊와 경찰뿐만 아니라 學業에 전념하는 학생들까지 男女老少할 것 없이 汎國民의 운동으로 발전하여, 國內에 150만의 수련생과 30만의 有段者를 배출하였는가 하면 해외 40여개국에 700명의 師範을 파견하여 50만의 수련생 (태권도 협회 1976. 8월 통계)에게 태권도를 가르침으로서 民間의교와 國위선양은 물론 英國의 紳士道, 日本의 武士道 精神과 비교될 수 있는 韓國의 「태권도 정신」을 世界속에 심고 있다.

그러나 現在 태권도의 始初가 되는 古代 태권(三國時代를 中心으로)에 關한 文獻의 整理가 되지 않아 修練生이 그 歷史를 알기가 어려운 實情이므로 微力하나마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根據로 古代 태권의 發展過程을 歷史적으로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I. 祭天儀式과 跆拳道(手搏)

東西를 莫論하고 原始時代에 있어서는 鬪技가 유일한 體育的 活動이었다. 이러한 鬪爭行爲는 生存을 爲한 必需物의 獲得과 外敵을 防禦하는 人間의 本능의 活動이었다.

그러나 人間의 智慧가 發達함에 따라 肉體의 힘만으로 동물보다 우세할 수 없음을 알아 武器를 發明하고 個人의 힘이 團體의 힘보다 弱함을 느껴 모여 살기시 작하였다.

武器 使用 後에도 自己體力을 튼튼히 하려는 生存意識은 계속 되었으며 自己의 體力을 發揮하고자 하는 人間本能이 遊戲로 發展하였다.

또한 이 時代는 農業을 爲主로 하던 農經時代이었으므로 天神, 太陽, 山岳, 等を 崇奉하는 原始信仰(崇天敬神), 民間信仰(샤머니즘)이 唯一의 生活이니 만큼 五月下種, 十月秋收가 끝나면 群衆이 모여 神에게 祭祀하는 風俗이 있었다. 이는 部族에 따라 扶餘에서는 迎鼓 濊에서는 舞天, 그리고 高句麗에서는 東盟, 馬韓에서는 十月祭 新羅에서는 嘉俳라 불렀으나, 거의 같은 性質의 祭禮이었던 것이다.

이 祭禮를 中心으로 飲酒를 베풀고 晝夜로 즐기던 歌舞는 지금껏 傳하는 農樂에서 그 취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農樂을 비롯하여 祭天大會에서 餘興으로 즐기던 遊戲娛樂이 점차 競爭意識을 갖게 되어 競技로 發展하였음은 疑心할 바 없다. 이러한 것은 多神教를 信奉하는 그리스인들이 여러 神의 靈을 慰勞하기 爲하여 神展에서 祭典競技를 행한 「올림피아」 競技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또한 部落의 單位가 擴大됨에 따라 國防能力과 戰鬥技能의 向上은 目標로 강한 精神力과 體力배양을 爲한 武藝의 必要性이 強調되었다.

이러한 時代的 環境에 따라 祭天大會의 體育活動 역사 鬪技를 中心으로 한 武藝體育을 重視한 關係로, 여기에 參席한 武士들이 그들의 武技를 겨루게 되었다.

이러한 祭禮儀式이 계속됨에 따라 身體強健을 위한 方法으로 養生術(保健體操)이 實施되어 動作이나 힘이 우세한 動物의 모양, 攻防姿勢等を 人間의 鬪爭經驗을 爲主로 體系化 시켰을 것이니 여기에서 오늘의 태권도가 싹트기 시작 하였으리라 생각한다.

태권(手搏)은 이러한 祭天儀式과 武士團의 發展에 수반되어 점차 발전하게 된 것이다. 推察된다.

그래서 羅絢成(1975: 19) 도 “手搏은 三韓時代 蘇塗祭禮 行事에서 行해진 鬪技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三國時代에 들어와서도 高句麗, 百濟, 新羅가 國內으로는 民族統一을 爲한 영토분쟁과 社會의 文化發展을 爲한 각축전을 벌였으며 國外로는 外敵의 방어 때문에 자연히 武術이 發展되었고 武士의 地位가 확보되었다. 三國史記 列傳에 收錄된 人士가 모두 87명인데 그 중 武士가 60명인 것도 이러한 歷史的인 背景에서 緣由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時代的 環境에서 우리나라 武士道가 形成되어 왔으며 마침내 高句麗의 卑衣先人, 新羅의 花郎徒와 같은 古今東西에 빛나는 武士道の 確立을 보게 되었다. 이 시기의 武人들은 劍術이나 다른 武藝의 基礎修練으로 태권(手搏)을 行하고 있었다고 推察할 수 있다.

이러한 事情은

“劍術은 手術의 妙로 부터 나온다”

라고 기술한 海東竹枝(최영년 1925: 手辭打條)를 보아도 劍術의 기본으로 手術을 重要視했음을 알 수 있다. 또 武藝書로서 定評이 있는 武藝圖譜 通志에 依하면

「拳法(태권)은 對戰을 하는데 그다지 무예로서 必要性이 없는 것 같으나 손발을 마음대로 使用하고 四肢와 몸의 活用法을 항상 이용할 수 있게 연마하므로 무예의 초보와 토대가 된다……永字¹⁾를 書함으로써 入法의 勢를 알아 모든 글자를 통합과 말안장에 앉는 법을 안 후에 말을 달리는 法은 拳法과 같다…… 拳法(태권)은 힘을 養成하는 것이다…… 拳法에 能한 者는 도술의 變化理致(攻擊과 방어 陰陽虛實: 筆者記)를 잘 알고 이를 活用한다²⁾

하였으니 우리 나라의 武士들은 일찌기 部族國家時代부터 武術의 하나로 태권(手搏)을 行하였음을 推定할 수 있다.

二. 三國時代의 跆拳道와 武士團

武士 青年團하면 우리는 흔히 花郎을 생각하고 花郎을 爲主로 韓國의 古代 武藝가 發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花郎이전에 高句麗의 「선배」라는 武士團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고구려가 強力한 國家로 發展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1. 高句麗의 「선배」(卑衣仙人)

太祖大王은 2세기경 氣力이 있고 好戰的인 青年들로 「선배」제도를 만드므로써 國家의 強成을 促進시켰다. 즉 高句麗 太祖大王때 卑衣란 記錄이 처음 나타나고 이어 다음 王인 次大王(三國史記: 次大王條) 때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太次兩大王이 五部族으로 國家體制를 形成하면서 「선배」 제도를 創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배」는 史籍에는 卑衣, 先人(三國史記: 次大王條), 卑衣先人(後漢書東夷傳: 高句麗條), 翳屬仙人(隋書: 東夷傳)이라 記錄되어 있는데 先과 仙은 「선배」의 音 「선」이요, 人은 「선배」의 「배」의 뜻을 빌려쓴 吏讀文이며, 卑衣는 上首의 옷색갈, 翳屬은 무사모의 깃(折風)에서 由來한 것이다. 卑衣, 先人을 單적으로만 보는 見解가 있으나 渤海史에 先人을 「士正兵」(신채호 1948: 316)이라 하고 韓國史 古代篇(이병도 1959: 602)에 “선비」는 싸움에 당하여 물러서지 않는다”한 것으로 보아 先人이 「선배」라고 부르는 武人임을 推察할 수 있다.

海東雜錄에서도

“明臨答夫 蓋蘇文이 卑衣仙人出身이다” 하여 明臨答夫와 淵蓋蘇文이 「선배」出身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1) 永字는 글씨를 쓸 때 으뜸이 되는 글자로 점, 획, 비침, 편침, 간격등 글씨에 필요한 점을 전부 구비하고 있다.

(2) 武藝圖譜通志卷四拳法條

「拳法以無預于大戰之技 然活動手足慣動肢體 爲初學入藝之門……知點劃而後 可以教八法(書苑曰王逸少書偏工書永 以其八法之勢能通一切字永八劃也, 知據 而後可以教馳驟拳之謂也……力也……拳有勢者所爲化也)」

또 연개소문의 아들 男生 이 聰明하여 9세에 韋衣仙人의 一員이 되고 父의 選으로 郎官이 되었다(李蘭映 1968 : 225)는 사실로도 韋衣, 先人이 단순한 官職이 아니라 武士團「선배」에서 由來한 이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韓國古代史研究에 精緻한 面을 보여준 申采浩는

「太祖때에 와서 年歲 三月 十月「신수두」大祭에 모든 群衆을 모아「或 갈로 춤추며」或 활도 쏘며或 양갈길도 하며, or 택진이도 하며, or 江水도 깨며 물속에 들어가 물싸움도 하며 or 歌舞를 演하여 그 美惡을 보며, or 大狩獵을 行하여 그 射獲의 多寡도 보아 여러가지 내기에 勝利하는 者를「선배」라 稱하고「선배」된 以上에는 國家에서 祿을 주어 그 처자를 먹이며 家室에 累가 없게 하고「선배」된 자는 各 其隊를 나누어 한집에서 자며 한자리에서 먹고, 앉으면 故事를 講하거나 學藝를 習하거나 하고 나가면 山水에 探儉하거나 城廓을 쌓거나 道路를 닦거나 群衆을 爲하며 講習하거나 하여 一身을 社會와 國家에 바쳐 모든 困苦를 사양치 않으며 그 중에서도 性行과 學問과 技術이 가장 超出한 者를 뽑아 스승으로 섬기어 一般의「선배」들은 머리를 깎고 阜帛을 허리에 두르고, 그 스승은 阜帛으로 옷을 지어 입으며 그 스승중에 上首는「신크마리」或「頭兄」或「太大兄」이라 稱하며 그 다음은「마리」或「大兄」이라 稱하며 最下는「小兄」(本語는 無 考)이라 稱하고 戰爭이 일면「신크마리」가 그 전부의「선배」를 모아 스스로 一團을 組織하여 戰爭에 다다라 戰死할 것을 다짐하며 죽어 돌아오는 者는 人民들이 이를 凱旋하는 者와 같이 榮幸으로 보았으며 敗退하면 이를 唾棄하므로 선배들이 가장 戰場에 勇敢하며, 高句麗 當時에는 各種의 地位를 거의 骨品으로 열어 微賤한 자가 高位에 오르지는 못하나 오직「선배」의 團體는 微賤이 없이 學問과 技術로 個人의 地位를 정하는 故로 人物이 그 中에서 가장 많이 產出되었다.

하여 東盟을 비롯한 各種祭禮 儀式과「선배」의 關係「선배」의 性格등을 論述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선배」는 戰鬪部隊의 役割을 담당하면서 高句麗의 國力伸張에 이바지 하였다. 더우기 소수림왕 2년(372)에 세워진 太學이 武藝를 學科目으로 채택함으로써 武人들이 체계적인 教育을 받기 시작했고 扁堂이란 私塾에서도 이를 본받기 시작하였다.

李丙燾 (1959 : 569)에 依하면

「高句麗 太學에서는 武藝도 學科目으로 教育하였고…… 僻巷窮村에 이르기까지 文武의 學을 崇尚하여 扁堂이란 私塾을 設置하여 未婚男子를 모아놓고 經典과 弓術을 가르치었던 것이다. 高句麗人의 文武一致主義의 教育은 向學熱과 教育의 普及에 依하여 一般化하였던 만큼 이것이 高句麗로 하여금 末期에 이르기까지 強力國家의 威力을 날리게 한 所以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高句麗 末期 淵蓋蘇文때에는「선배」가 국운을 좌우할 程度로 強力한 武士團으로 發展하고 있었고 그들의 武藝水準은 “僞軍 三萬으로 唐太宗의 三十萬을 물리쳤다”할 만큼 높은 程度에 달하고 있었다. 그들의 上首는 國家의 大權을 쥐고 있었으나 明臨答夫가 次大王을 폐하고 新大王을, 연개소문이 嬰류왕을 폐하고 보장왕을 등극시킨 것이 그러한 例

(3) 高麗史 列傳 第26 崔瑩傳

「唐太宗以三十萬衆侵高句麗發僞軍三萬擊破之」

였다.

僧軍 三萬의 僧軍은 佛敎의 僧軍이라기 보다는 연개소문의 仙人軍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仙人 즉 선배는 후대로 내려 오면서 軍隊조직의 制度化로 戰士團의 役割이 弱화 되고 국가의 관심도 적어지면서 武學폐지 이후 학문을 하지 못하여 知의수준이 낮아져 선비⁽⁴⁾의 명칭도 儒敎徒에게 빼앗기고 散武士의 一部가 僧軍조직에 參與하여 後人이 在家私尙 또는 僧軍으로 오인하여 불렀다. 高麗를 다녀간 宋人 徐兢도 高麗圖徑에서

在家和尚은 가사도 입지 않고 戒律도 지키지 않으며…… 阜帛을 허리에 두르고……변경에 전쟁이 일면 스스로 식량을 가지고 나가는고로 국가에 재력이 없어도 능히 싸울 수 있어서 契丹이 高麗에 패하였던 까닭도 이 무리 때문이었다. 이들은 刑餘의 人과 같이……髮削하였으므로 和尚이라고 칭한다⁽⁵⁾

라고 하였다.

「선배」의 遺風으로 고려에서도 結婚前貴家子弟로 검은 비단 옷을 입고 奉公에 從事하는 仙郎이라 칭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아 僧軍이 先人軍이요, 또한 在家和尚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遺風은 近來까지 依해 왔으니 李能和는 佛敎通史에서 “北道沿郡에 在家僧材이 있다”고 하였고 申采活도 조선상고사(1948: 149)에서

「今 咸鏡北道の 在家和尚이 高句麗 「선배」의 遺種이며 松都手拍이 곧 「선배」 경기의 一部分이니 手拍이 支那에 들어가 擧法이 되고, 日本에 건너가 柔道가 되고, 조선에서는 李朝에서 武風을 賤視한 以來로 그 자취가 거의 全滅하나라」

하였다.

以上으로 보아 「신수두」 祭典의 「선배」 競技에서 跆拳道(手搏) 競技가 實施되었음을 推察할 수 있는데 이러한 事實을 뒷바침 해주는 것으로 當時의 生活樣式이나 風俗을 전해지고 있는 高句麗 古墳인 三室塚, 舞踊塚, 角抵塚의 壁畫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三室塚, 舞踊塚, 角抵塚의 四方壁面과 天井에는 고구려인들의 生活를 나타낸 그림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 중 三室塚 第三室 西壁에는 맨손으로 무예를 修練하는 武藝修練圖(圖 1)가 그려져 있으며, 角抵塚의 主室 左壁에는 해가 뜬날 큰 나무 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잡고 씨름을 하는 옆에 심판이 서있는 그림이 있고, 舞踊塚에는 主室正壁에 幕을 친 室內에서 主人이

(4) 「선배」에서 선비, 在家和尚이란 이름이 생겨난 由來는 申采活의 朝鮮上古史 pp. 148-149에 詳記되어 있다.

(5) 「在家和尚, 不服架裳, 不持戒律……東腰阜帛……邊郵有 則人自襄糧, 故國用不費而能戰也 聞中聞 契丹爲麗人所敗 正此輩其實刑餘之役人 夷人以其髮削鬚鬢 而名和尚也」

(6) 高麗國徑 卷 20, 驅使條

「使與, 仙郎相類, 大抵皆未娶之人, 在貴家子弟則仙郎, 故其衣 紗或羅, 皆阜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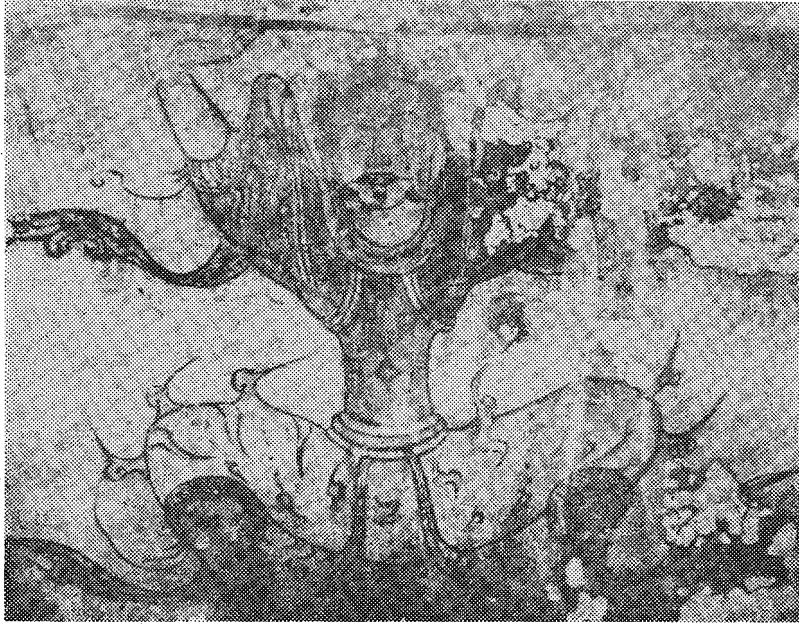


圖 1 三室塚 武藝修練圖



圖 2 角抵塚 씨름도(角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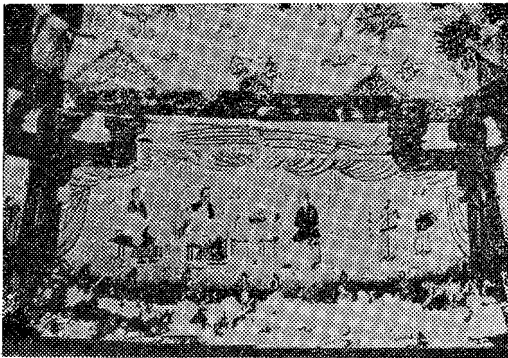


圖 3 舞踊塚 接客圖



圖 4 舞踊塚 狩獵圖

接客하고 있는 그림(圖 2)과 그 左壁에는 노루와 범같은 동물을 사냥하는 狩獵圖(圖 4) 右壁에는 舞蹈圖(圖 5)가 그려져 있으며 南壁에는 巨木이 그려져 있고 玄室과 主室 天井에는 각 각 두 장사가 서로 겨루고 있는 그림 即 跆拳道(手搏)의 겨루기 자세(圖 6)와 비슷한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은 바야흐로 雙方이 서로 공격하려는 찰라의 광경을 그린 것으로 참으로 기운찬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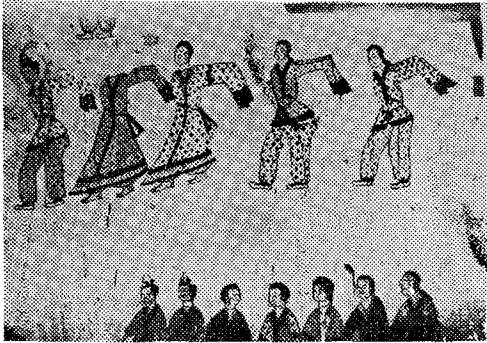


圖 5 舞蹈塚 舞蹈圖



圖 6 舞蹈塚 겨루기圖

사이도우다다시 (齊藤忠)는 朝鮮 古代文化の研究(1936 : 78)에서

「古墳에 風俗圖를 壁畫로 나타낸 것은 高句麗에서 特히 발달한 것인데 古墳의 壁畫題材는 그무덤에 묻혀 있는 者의 生前의 行動을 나타냈는지 或은 그사람을 葬死지낼 때 있었던 事實이나 行事의 模樣을 拷寫한 것이다.」

한 것과 金元龍도 舞蹈塚을 說明한 가운데서(진단학보 1960 : 21호)

「가장 興味있는 것은 하늘을 表示하는 鳥文인데 여기에는 아직 鳥刑 비슷한 형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주 圖式化된 것 그리고 一種의 記號化한 것의 三種이 있다……이렇게 三刑式이 한 무덤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全體가 高句麗에서 獨自의인 發達過程을 밟은 것 같고 特히 鳥文을 하늘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은 高句麗의 發明같다」

한 것과 前記한 申采活 說로 미루어 본다면 舞蹈塚에 있는 두 사람의 겨루기 자세는 被葬者가 生時에 跆拳道를 行했든지 아니면 그 祭禮行事에서 죽은 者의 영혼을 慰勞하기 위해 사람들이 歌舞와 아울러 跆拳道를 행한 모습을 그린 壁畫일 것이라고 推定할 수 있다. 또한 壁畫에 原始信仰의 象徴인 天(鳥文) 山岳(狩獵圖) 巨木(角抵塚)이 나타나고 그들의 복장이 同時代의 中國人과는 달리 옷과 띠에 검은 색을 사용하고 있는 點을 보아 「신수두」의 祭天大會에서 跆拳道, 씨름等을 行하였고 그들의 대표적인 武士團이 「선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圖 2와 圖 6을 比較해 보면 高句麗時代부터 태권과 씨름은 각각 분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新羅의 「花郎」

新羅는 건국 초기에는 平和로운 生活을 영위했으나 三國의 政權과 더불어 세력 확대의 政變을 벌임에 따라 무예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眞興王은 12년에 風流, 風月徒라고 불리워오던 젊은 이들로 花郎을 창설하여 國家發展의 기틀을 마련했다.

三國遺事(卷 3. 彌勒仙花條)에도

“眞興王은 神仙을 崇拜하고 나라를 빛나게 하는 方法으로 風月道를 일으키어 薛原郎으로 國仙을 삼고 花郎을 創設했다”라 하였고 李仁老도 그의 破閑集에서 花郎을 說明한 뒤 그들이 八關會에 참석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安啓賢은 그의 八關會巧(1959: 4)에서

眞興王 12년(551)에 對 高句麗戰에서 귀화한 法師 惠亮을 僧統으로 삼고 八關會를 設하였는데 佛敎의 八齋보다는 民間信仰의 祭天大會에 가깝고, 軍士的 歌舞的, 修練的 機能을 가진 花郎이 參席했다.

고 述하고 있다.

申采活 (1948: 223)도

「國仙花郎은 眞興大王이 곧 高句麗의 「선배」제도는 닮아온 者라……「선배」를 「신수두」壇前의 競技會에서 뽑아 學問에 힘쓰며 手搏, 擊劍, 射藝, 기마, 덕견이, 양감질, 씨름 등 各種 技藝를 하며 遠近山水에 探險하며 詩歌와 音樂을 익히며 전란시에는 戰場에 나아가 죽음을 영광으로 알아 一身을 희생하는 것이 선배와 같다」

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사상은 김유신의 무리를 龍華香徒라 불렀고 眞興王이 惠亮을 僧統으로 八關會와 護國 仁王經을 讀講하는 백좌강회를 행한 것으로 보아 미륵 信仰과 결부된 護國佛敎 思想이었고 花郎의 武術 역시 護國 爲主이었던 만큼 護國을 意味하는 금강 역사상이나 인왕상에 武人의 修練像이 나타나 있어 지금까지 생생한 資料로 내려 오고 있다.

이러하면 선덕왕 3년(634)에 세운 분황사탑 기단의 인왕상(圖 7)이나 분황사 동남쪽의 폐탑에서 발견된 石刻 仁王像(圖 8)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인왕상에서는 攻防자세를 엿볼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불국사의 금강역사보다도 50년이 앞선다.

또한 힘의 상징인 금강 역사상(圖 8, 10)을 보면 공격과 방어의 선명한 姿勢를 엿볼수 있다. 특히 圖 9를 보면 금강역사의 주먹과 편주먹이 현재의 모양과 같은 것으로 보아 당시의 術이 現在의 태권도와 같은 形態까지 발전 하였고 圖 10을 보면 발을 사용한 흔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이 時代의 佛敎가 단순한 宗教로서가 아니라 護國思想으로서의 役割을 담당



圖 7 분황사탑 기단의 仁王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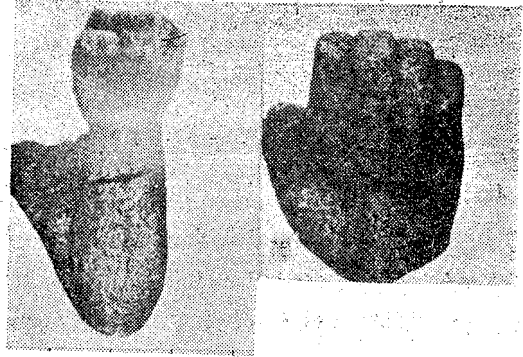


圖 8 금강역사의 주먹과 편주먹



圖 9 석굴암의 金剛力士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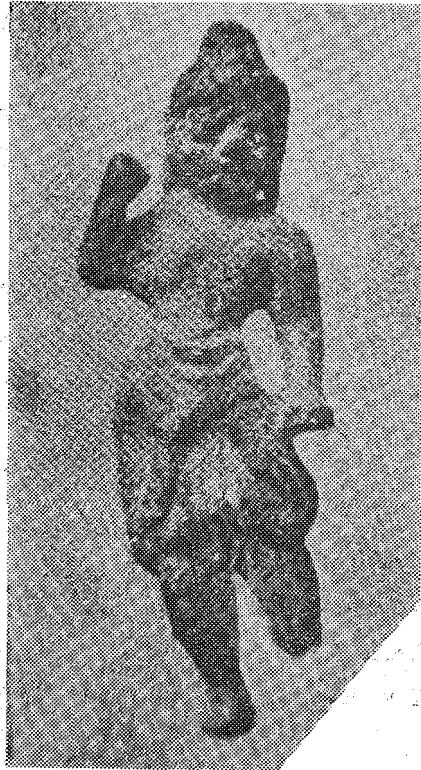


圖 10 銅造 金剛力士像(경주박물관)

하고 있었으므로 武藝를 통하여 護國을 담당하는 武人들의 風貌나 기질이 佛敎와 融合되면서 여기서 그들의 白手武術이 佛敎調刻에 등장하게 된 것으로 理解된다.

3. 고구려 태권의 신라전승

태권은 시대의 진전에 따라 分化, 發展되어 三國을 거쳐 고려에 전해졌다. 三國時代의 태권도 발전은 고구려에서 신라로 전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理由로는

첫째, 語源으로 볼 때 花郎은 仙郎이라고도 했으며 仙郎의 “선”은 음이요 “랑”은 선인 선배의 뜻 “사람”을 취한 이두문으로 선배의 배와 같으며 화랑의 연원사를 仙史라 함을 보아도 仙郎, 화랑, 선배, 선인이 다같은 젊은 무사단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진흥왕 12년에 화랑을 創設하고 八關會를 개설하였으며 혜랑을 승통으로 받든자가 高句麗의 문물을 정탐하고, 돌아온 거칠부이며 승통이란 職이 文官이 아니라 武官이란 點을 보면 花郎의 修練에 高句麗의 선배를 본 받았을 것이며

셋째, 화랑과 선배의 조직과 上下區分이 같고,

네째 「신수두」 경기에서 선배가 태권을 행하였듯이 八關會나 한가위 같은 모임에도 화랑이 겨룬 경기에 태권(手搏, 탁견이) 이 포함되었다고 신채호가 말한 점으로 보아,

적어도 2세기 경에는 옛부터 내려오던 鬪技가 跆拳道로 체계화 되어 “선배”가 武의 기본으로 행하고 있었으며 4세기 부터는 太學과 扁堂에서 體系的인 武藝를 教育함으로써 더욱 發展하여 무용총과 각저총의 벽화에 나타나듯 一般的인 武藝로 發展하였다고 생각되며 新羅에서는 武術을 본받아 發展시켰으며 손기술과 발기술이 分化하여 組織과 體系를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事實은 이 시기의 調刻이나 佛像에 있는 人物의 動作에서 손기술 발기술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구려의 “탁견이” 신라의 “태견”이라는 말이 우리 말이었으며 吏讀을 빌어서 후일 탁견(托肩) 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을 보아도 이미 新羅에서 발기술이 나누어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特記할 것은 手搏이란 用語와 탁견이(탁견이)가 같이 나타남을 보아 고구려의 태권이 新羅로 넘어 오면서 손기술과 발기술이 分化되었다고 推測된다.

手搏이란 손기술의 名稱으로 武人이나 上流층에 치중된 技術이고 劍術이나 他 武術의 基礎修練으로 실시되었고 一般平民들은 몸 以外에는 다른 무기가 없으므로 위력이 강한 발을 中心으로 技術을 發展시켰으며 이는 “태견”이란 말이 이두(吏讀) 말에서 비롯되었다 함과 후일 이 말이 탁견(托肩)이란 漢字로 表記되었음을 보아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4. 百濟의 武藝修練

高句麗나 新羅와 같이 태권도 실시에 대한 실증은 희박하나 三國이 勢力다툼을 하던 時代인 만큼 高句麗와 新羅에서 行하여 졌고 후에 고려에 전승된 것으로 보아 다른 武藝와 같이 跆拳道가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비류왕 17년(3202) 8월 궁궐 서쪽에 射臺를 쌓고 매월 초하루 보름으로 활쏘기를 연습했다(삼국사기 백제본기 비류왕조) 함을 보면 활쏘기 뿐만 아니라 다른 武藝도 같이 하였을 것이다. 羅絢成은 그의 한국 체육사 연구(三國時代의 武藝의 遊戲와 娛樂條)에서

“三國이 다같이 個人的 護身術인 角抵手搏 등의 競技的이고 遊戲的인 武術을 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日本 書記(24卷 皇極天王 元年條)에는 “百濟의 사인 大佐平 智積등을 日本 조정에서 초청 하여 일본 진아들과 상박을 하였다”라는 記錄이 있다. 이를보면 백제 시대에도 태권이 행하여 졌다고 볼 수 있다.

結 語

以上으로 우리나라 古代 태권의 發展과정을 檢討하여 보았는데 그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태권은 東盟, 迎鼓, 舞天 嘉俳와 같은 古代 部族社會의 祭天行事에서 行하여진 儀式의 한 形態에서 그 起源을 찾을 수 있으며 國防能力과 戰鬥技能向上을 위한 武術의 하나로 태권을 실시하였다.

고구려의 武士團인 「선배」는 적어도 2세기 경부터 신수두 경기에서 태권을 실시하였고 4세기말의 太學과 5세기 중엽의 景堂에서 文武一致의 教育을 強化함에 따라 6세기 初에는 現存하는 벽화에 나타나듯 一般大衆에까지 널리 보급 되었으며 新羅에 전해져 花郎의 修練에 힘입어 基本動作 품세(型) 겨루기(對練)로 더욱 分化된 체계를 이루어 발전하고 있었다.

(師範大學 體育科)

參 考 獻 文

1. 三國史記
2. 三國遺事
3. 高麗史
4. 破閑集
5. 武藝圖譜 通志
6. 李蘭暎(1968) 韓國金石文追補 서울: 中央大學出版部
7. 崔永年(1925) 海東竹枝 京城: 獎學社
8. 朝鮮史學會編(1970) 支那史料抄 서울: 景仁文化史
9. 徐兢 宣和奉使 高麗圖徑
10. 池內宏(1936) “滿州國 安東省 輯安縣 高句麗遺蹟” 新京滿日文化協會
11. 楊泓(1958) 高句麗 壁畫 石墓 文物參考資料 第四期
12. 申采浩(1948) 朝鮮上古史 서울: 鍾路書院
13.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14. 秦弘燮(1957) 慶州의 古蹟 서울: 通文館
15. 羅絢成(1975) 韓國體育史 서울: 文泉社
16. 李基白(1970) “高句麗 肩堂에 관한 연구”
17. 安啓賢(1956. 12) “八關會考” 東國史學 第四輯
18. 金元龍(1960. 10) “高句麗 古墳壁畫의 起源에 관한 研究” 震檀學報第21號
19. 羅絢成(1965. 12) “韓國手搏 柔道에 관한 史的 小考” 서울師大教育會
20. 李丙壽(1959) 韓國史 古代篇 서울: 乙酉文化史
21. 李瑄根(1972) 花郎道 서울: 瑩雪出版社
22. 三品影英(1943) 新羅花郎の研究 東京: 三省堂
23. 齊藤忠(1944) 朝鮮古代文化の 研究

Abstract

Chan Mo Chung

The original performance of 'Taekwon' dates historically as far back as to the remotest tribal states of Korea and found its first formal expression in the state religious rituals of 'Dongmaeing', 'Yonggo', 'Muchon' in early Kokuryo, Pyuo, and Ye states respectively; or 'Kawi' of the southern state silla. Since 'Taekwon' was believed to be effective and basic for acquiring one's physical strength and war skills in which the sword and lance were the chief weapons, these states eventually came to put more emphasis on the practice of the skill as they had grown more subject to increased chances of wars and strifes waged among themselves or with other neighbors than these Korean tribes. No wonder that, in such well-organized warrior groups as 'Sonbae' of Kokuryo and 'Hwarang' of silla, 'Taekwon' was not practiced only for its own but a qualified warrior was also required to be trained through 'Taekwon' before or along with his trainership through the sword practice.

'Sonbae' seemed to employ 'Taekwon' from at least the 2nd century A.D. In the 4th century it was practiced as the part of the curriculum in the State and municipal academies of Kokuryo called 'Taehak' and 'Kyongdang' where the classical scholarship had been taught, and by the end of the Kokuryo Dynasty when the role of 'Sonbae' as the basis of national defence was vital and decisive, 'Taekwon' came to be considered to bear directly upon the national spirit and military morale, for now is gained popularity and was fully developed into a general form of state athletics.

Such circumstances were fundamentally the same with Silla, where Taekwon had been introduced from Kokuryo at an earlier time and moved remarkably fast toward its perfe-

ction by refining the skill and attributing spiritual significance to the practice. It is very interesting that 'Taekwon' occasionally influenced Buddhism-based carvings and statues, which more often than not represented the Taekwon man in action or various postures originated from it. Since it was character of Silla that Buddhism was strongly intermingled with patriotism, it would not be very strange that some of Buddhism-oriented armed genii (large statues of 'In Wang' and 'Keum Kang the Mighty') were obviously motivated by the Pooms (patterns) of 'Taekwon'. These statues and carvings show that a full course practice of 'Taekwon' included three different phases of basic skill, training pattern and matches, which are the same divisions of modern 'Taekwon'. In short Taekwon practice in Silla appears to have surpassed that of Kokuryo.